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 하는 말을 하지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7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20일)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빠른 승려 고령화 요양시설 준비를”

조계종 승려복지회 토론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1년 제정된 조계종 승려복지법이 현재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와 각종 공공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속보다 빠른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종단차원서 승려요양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조계종 총무부장)는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전문가들은 복지 3대 요소인 주거 · 의료 · 소득 중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승려복지제도에 주목했다.

현행제도 주거보장 全無

‘승려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스님들에게 지원된 승려복지기금 통계내역을 바탕으로 요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항목보다 적은 것을 짚었다. 이는 곧 세간의 요양시설에 대한 스님들의 부정적 시각을 방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사무국장은 “그동안 개별 스님들의 능력에 따라 사설사암 창건 내지 토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강구됐지만 인구 및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이것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수행공간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님들에게는 단순한 주거공간 기능만이 아닌 공동체 수행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화사 기획국장 미수 스님도 “승가 초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중수행처를 건립해야 한다. 안정된 대중수행처가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발심출가자가 증가하고, 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사회를 맞는 불교계 전략’을 발표한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 역시 불교계가 △완주군 안덕마을 한의원 △힐리언스 선마을 △제주 힐링명상센터 등을 벤치마킹 해 복지와 의료 등을 갖춘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김명순 부천대 교수도 “안거 철에는 제방선원에서 대중생활을 하지만 해제가 되면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님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수행공동체 공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전문가들은 승려요양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창구를 각 지역 교구로 꼽았다. 화엄사 승려복지회를 발족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구 복지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말사 승려복지분담금 배정 △유언장 작성 및 공증제도 도입 △유산기증운동 △사설사암의 교구공찰화 △재가후원회 결성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분야 승려복지기금 중
유독 요양비 신청 비중 적어
일반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수행공동체 성격의 시설 필요
전국 교구본사 함께 고민해야

덕문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한 직영사찰이나 특별분담사찰을 본사에서 지정해 운용하도록 하거나 승려복지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종학 사무국장도 고정적인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영 ·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승려복지 특별분담금 부과와 각종 소임자 보시금 일부 회계 적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시행해 법랍에 따른 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종회의원 묘장 · 원묵 스님,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 스님,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사무국장 청아 스님,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성탄 트리’ 아래 하나 된 종교 한국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빛 아래 하나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9일 서울 조계사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기념 트리등(燈)을 점등했다. 이웃종교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서 원행 스님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강압에 힘겨운 약자들에게 평등과 용기를 북돋아 뜨거운 열정과 화합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총장 선거 본격화… 후보 10명 거론

법인 이사회, ‘총추위’ 추천으로 선출 방식 확정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 방안이 기존 방식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 신임 총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2월 18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16회 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선출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학내 교수들의 물밑 작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장 선출은 전에 없는 ‘다자간 경쟁 구도’로 가는 모양새다.

본지 확인 결과 12월 20일 현재 출마 의사를 확정 지은 후보군은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 · 이윤호(경찰사법대학장) · 정창근(국제통상학과) · 조의연(영어영문학부)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이상 가나다 순) 등 8명이다.

박명호(정치외교학전공) 교수는 출마 여부를 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승기(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후보 출마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일호 교수는 현재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으로 돈독한 신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만한 인품으로 특정한 반대 세력이 없는 점도 강점이다.

유국현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마쳤으며, 2013년도에는 학교에서 시상하는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진학자다.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인 윤성이 교수는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온 것이 강점이다.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사찰림 활용과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상일 교수는 교무처장과 학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8명 “후보 출마할 것” 확인
12월 중 총추위 구성 예정
내년 1월에 이사회서 선출

이윤호 교수는 초대 경찰사법대학장으로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국내 최초 범죄 · 경찰분야 독립 단과대학으로 승격 · 확대를 주도하는 등 학교 개혁 의지와 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대외 활동 경력도 강점이다.

정창근 교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통한 동국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봉은사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불교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의연 교수는 경영관리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교내 행정에 밝으며, 대내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강하다. 또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불교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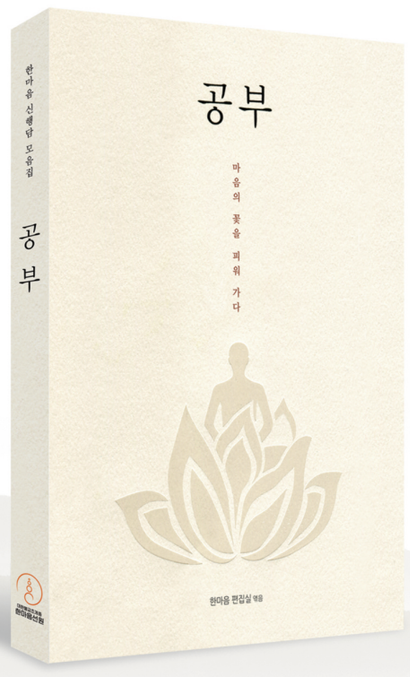
허남결 교수는 불교생명윤리 정립에 앞장 선 불자 윤리학자로 불교계에 높은 명망과 인지도를 가졌다. 보광 스님 취임 이후 비서실장을 맡아 오면서 지난 4년 동안 동국대 대내외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총추위는 교수 · 직원 · 조계종 · 동문 · 학부생 · 대학원생 대표 27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3~5인의 후보를 선발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총추위가 추천한 이들 후보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법인 측은 12월 말까지 총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1월 초에 1차 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신임 총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한그루의 숲』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